



### 우리시대 참스승

### 도평초등학교 교장 홍 병 옥

# ‘학교 어느 곳에서나 책을 만날 수 있다’

##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역량 탁월

포천시 이동면 광덕산 백운계곡 입구에 위치하여 주변 경관이 뛰어난 도평초등학교는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기초 기본교육 충실과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교육 아동의 소질에 알맞는 특기 적성 개발, 학교 자연 체험 학습장 조성 등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70여명의 전교생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정보탐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정보화 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공인화 사업에 충실하여 쾌적한 학교 시설 조성으로 학생들의 심성개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평초등학교 홍병옥(사진)교장은 2005년 3월1일자로 부임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책임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곳곳에 책을 비치하여 언제라도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학원차량을 기다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정자에도, 공원과 야외에도 책꽂이가 놓여 있다. 이 책꽂이는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우편함 형식으로 만들었다. 춘천에서 살 때 큰아이가 3학년때 어떤 사립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집안에 백과사전 인명편을 구비해 놓고 아이에게 직접 찾아 볼 수 있도록 알려주었더니 나중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도평초등학교에도 도서관을 만들고 도서함을 만들어 놓는 것은 이처럼 언제나 필요할 때 책을 가까이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홍 교장은 또 학교 연못을 잘 가꾸어 금붕어가 식구를 늘려 20여 마리가 함께 살고 있다. 먹이를 주려고 하면 졸졸 따라다닌다. 아름다운 환경과 독서분위기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홍 교장의 부임과 함께 2005년도에 도평

교장은 교사들이 기본 좋게 교육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고 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금붕어 밥도 주고 나무 손질도 해주고 화초에 물을 주는 등 학교 시설을 둘러보는 홍 교장의 손길로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도평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비 등을 학교부담으로 하고 있다. 현재 비즈공예, 스포츠 댄스, 보충수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에 체육공원을 조성했다. 포천시에 3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체육공원을 조성해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이 체육공원이 학교에 있다보니 이 지역 어른들이 학교를 자주 방문하게 된다.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자주 방문하다 보면 활기가 넘치고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게 된다. 그리고 지원하게 된다. 홍 교장은 지역과 함께 살아 숨쉬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 내부 시설을 말끔하게 정리 정돈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홍 교장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통학버스 운영이다. 현재 백운계곡에서 오는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당번제로 운행하고 있다. 백운계곡 정상까지는 12km다. 백운계곡에서 살고 싶어도 통학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사를 오지 않는다고 한다. 통학버스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 하나는 도서관 설치다. 50평 정도의 규모에 도서관을 꾸미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홍 교장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도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향토문화 체험학습의 날’ 效果만점

## 동남中 사회교과 관련 프로그램 2년째 실시

동남중학교(교장 최재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향토문화 체험학습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11월4일 실시한 프로그램은 사회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향토문화 체험을 통해 사회교과에 대한 친근감과 이해력을 높이고 사고력·창의력·표현력 등을 신장시키고 다양한 전통문화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예절의 이해 및 실천을 통해 올바른 기본습관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향토문화 체험 행사로는 역사영역과 경제영역, 지리영역, 사회문화영역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역사영역은 향토문화유적(충목단) 답사, 박물관 견학 및 체험, 가계도 및 가계사 작성, 향토사 퀴즈를 운영하고 경제영역은 경제교육 특강, 지리영역은 자기마을 그림지도 그리기, 사회



영북중학교는 10월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름내제 및 통일교육시범학교 발표회를 개최했다.

문화영역은 낚이기, 자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팽이치기, 사물놀이, 전통예절 익히기 체험과 언론의 역할 특강, 대중문화 이해 특강 등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한 동남중학교 나만열 교사는 “사회과목을 교육하면서 체험학습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학습이 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며 “내년에는 보다 올해 추진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도 추가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學生들의 건전한 文化활동의 장’

## 영북중학교 제8회 구름내제·통일교육 시범학교 발표회

영북중학교(교장 한상백)는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름내제 및 통일교육시범학교 발표회를 개최했다.

구름내제는 영북중학교 학생문화축제로 학생들이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표현욕구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스스로 계획하며 준비하여 실천함으로써 자발성과 함께 공동체적 연대감 형성과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의 공간의 마련과 학생자치활동의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시부문(C·A부문, 특기적성부



영북중학교는 10월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름내제 및 통일교육시범학교 발표회를 개최했다.

로 나누어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26인 27각, 윷놀이, 씨름대회 등 체육대회와 합창대회, 장기 자랑 등 행사를 거쳐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수상실적은 다음과 같다. ▶합창부문 1위 1-2반, 2위 1-1반, 3위 1-4반 ▶체육대회 종합우승 1-2반, 2-4반, 3-3반 ▶장기자랑 1위 3-2반 서봉화, 2위 3-2반 김정애, 3위 3-1반 김정래, 유재명, 3-4반 장국희 ▶미스영부 1위 3-1반 김병현, 2위 3-3반 김준홍, 3위 3-4반 최재경 김미경 주부영에게지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 배움과 즐거움으로 변화의 바람을

## 포천교육청 혁신학습동아리 학습결과물 발표대회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우수 혁신학습동아리를 발굴하고 활동내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10월31일 오후3시 포천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혁신학습동아리 학습결과물 발표대회를 처음 개최했다.

포천교육청 관내 11개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5개 동아리가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동아리에는 행정직 독서토론동아리의 독서를 통한 심층적, 다각적 토론이, 우수동아리에는 포천초등교사 사 진동아리의 「렌즈로 바라보는 내만



혁신학습동아리 발표대회를 마치고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의 세상」이 선정되어 교육장 상장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됐다. 경진대회를 마치고 총평에서 최길용 교육장은 “한해동안 애써 활

동해서 나온 학습결과물이 오늘 발표대회를 계기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학습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활성화 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학습동아리 발표대회는 구 성원들의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장 마련으로 적극적인 학습 참여문화 확산과 학습 조직의 필요성 인식·학습 성과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앞으로 도 포천교육가족의 학습 및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꿈·신바람·감동을 주는 희망 포천교육이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경북대 이관식 교수 한국시각디자인학회 회장 當選

## 국내 유일의 산업디자인 관련 모든 영역이 망라된 단체

경북대학 산업디자인과의 이관식(李寬植, 48 사진)교수는 10월2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된 (사)한국디자인진흥협회(KDC: Korea Designer's Council) 산하의 한국시각디자인학회 회장 선거에 당선됐다. 한국디자인진흥협회는 한국디자인학의 정립을 위해 국내 디자인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학술연구와 국제학문 교류를 도모하여 한국디자인의 교육과 디자인문화 예술경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1972년에 창립됐다. 회원은 전국의 디자인학과 교수와 전문디자이너 약 540여명의 회



원으로 구성되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35년간에 걸쳐 전 국대학생디자인 공모전과 해외 전 및 국내전, 학술논문집 발간을 통하여 우수 디자이너 발굴 등 한국디자인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디자인진흥협회는 한국시각디자인학회, 한국공예디자인협회, 한국공예, 환경디자인협회가 모인

단체이다. 따라서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한데 어우러져 연구하고 협의하는 단체로서는 국내 유일한 단체임을 이미 한국디자인 사회에서 주지되어 왔다. 그동안 공예디자인협회는 스위스 교류전, 공업, 환경디자인협회는 학술지 「디자인과학」의 활발한 연구발표가 있었고, 시각디자인협회 또한 국내외 작품전시와 트렌트 시대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의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공업디자인협회와 환경디자인협회가 통합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춘 행보로 진전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한국디자인진흥협회의 내실 있는 확대 발전적 위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시각디자인학회 회장으로 위촉된 이관식 교수는 서울산업대 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박사후 과정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핀란드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에서 디자인마케팅과정을 전공했다. 현재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추천작가이며 경북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윤중성의 미국어파리아기



- (참고) : - 준준결승 : Quarter Final 퀴러 하이널 - 준결승 : Semi Final 씨미하이널 - 결승 : Final Qualification 하이널 퀴러하이선
- (은행에서) \*어떻게 드릴까요, 현금 아니면 수표로? How do you want, in cash or in check? 하우두유원, 인캐쉬원인 -수표, 100달러 짜리로 주세요 I want in check, in hundreds, please. 아이원인원, 인핸드레스, 플리스 \*1천 불을 송금하려고요. I want to transfer \$1000.00. 아이원너트랜스취 원파우센달

- 라스 - 이것을 작성해 주세요. Fill this out, please. 휠디스아웃 플리스 \*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When will they get the money? 웬덜데이 갓 더 머니? - 1주일 이내로 받을 겁니다. Within a week, I guess. 위딘나위크, 아이게스 16. 1주일에 몇 시간 일하세요? How many hours do you get to work for a week? 하우메니아우스 두유게투워크 휘러워? -40 시간. Forty hours. 휘리아 위스 -아, 주 5일 근무 하시는군요. Oh, Five days a week. 오, 하이브테이서워

### 《 함께 공부해요 》

#### 소학(海東續小學) ④

黃衍淺宗海規曰 諸子孫은 敬事宗子 하여 毋或慢之 하라 如有慢之者면 則是無異於慢其祖先也니라 인자지사친에 필이공경위문 하고 이수신진행위선 이니 여유일호교문지침, 생년지사면 필지어진신위친 하리니 기불효대의 라 구복지양 계족속제 리오

후천(朽淺) 황중해(黃宗海)(1579-1642조선조의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 자손들은 종손을 공경히 받들어 흠대하지 말라. 만약 흠대하는 일이 있으면 선조를 흠대하는 것과 같다.” 과거에는 씨족(氏族) 사회(社會)가 되어서 종족을 중시했으며, 조상들의 제사를 받들고 선영(先塋)을 수호(守護) 한다고 하여 종손(宗孫)을 지극히 위하고 대우를 극진히 했다. 종자 중부를 위하여 복(服)을 입는다는 말까지 있다.

종손이 가난하면 자손들은 힘을 모아서 종손을 살게 해주었으며 종손을 위하는 일이라면 힘을 아끼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종손을 공경히 받드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종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 보며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문의:011-354-6485)



양주신 본지 서문위원장

### 소중한 경험 32가지

‘중학생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해 봐야 할 소중한 경험 32가지’를 읽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아 진 것 같다. 맨 처음에 읽고, 해보고 싶었던 것은 ‘혼자 여행 떠나기’를 맨 처음에 해보고 싶었다. 항상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학교를 가기 전에 한번이라도 나 혼자서 꼭 여행을 떠나 보고 싶다. 그러면 용기와 자신감이 더욱더 성장할 것 같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또, ‘하루 세게 굶어 보기’도 해보고 싶다. 하루 세게 굶어 보면 한끼의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요즈음 밥부정을 하는 어린이, 편식하는 어린이들이 많다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한끼의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그리고 이 외에 정말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생님 어깨 주물러 드리기’이다. 여태까지 몇 번 밖에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을 위해 목이 아프시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몇 번 밖에

어깨를 주물러 드리지 못해서 정말 선생님께 죄송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부모님 생신상 차리기’, ‘밤, 대추, 과일 따보기’, ‘내 손으로 직접 나무 심어 보기’, ‘쥐뿔놀이 해 보기’ 등등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두 해 보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내년에 졸업하는 데 이 것들을 모두 해 보기도 전에 졸업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읽었는데 정말 나는 이 이야기들을 본받아야 할 점이 많아졌다. 한번도 나 혼자서 부모님 생신상 차려 보지도 못했고, 효도 봉사도 못했고, 정말 그 동안 못 해 본 것이 너무도 많았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채워 가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전통놀이도 하는 재미와 방법도 잘 몰랐다. 이런 내가 그 때는 창피한 줄 몰랐는데 지금 책을 읽고 난 뒤 얼마나 창피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중학교가 전에 꼭 해 봐야 할 것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서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도 배우면서 전통문화체험도 하고 일석이조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들에게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이렇게 하다보면 역사에 대한 것도 자연스럽게 자세히 알게 되어 앞으로 중학교에 가서도 사회공부에도 보탬을 줄 수 있게 되니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꼭 전통문화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볼 것이다. 나를 이렇게 다정하게 도와준 이 ‘중학생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해 봐야 할 소중한 경험 32가지’ 책에게 깨우침을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책이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박하은 초3초 6년



박하은 초3초 6년